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틀을 바꾸면 미래가 달라집니다.
대한민국 재도약의 힘, 창조경제

경제혁신
희망의 새시대
http://www.motie.go.kr

산업통상자원부 **보 도 자 료**

2016년 7월 15일(금)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7.15(금) 오전 6시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16. 7. 14. (목)	담당부서	에너지신산업진흥과 전력진흥과
담당과장	이귀현 과장(044-203-5390) 김성열 과장(044-203-5260)	담 당 자	신유철 사무관(044-203-5391) 조영길 사무관(044-203-5267)

전력데이터 공개를 통한 에너지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

- 정부, 1단계[전력], 2단계[가스, 열] 정보공개 계획 밝혀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7.15.(금) **우태희 2차관 주재**로 **제2차 「에너지신산업 협의회」**를 개최했다.

○ 금번 회의에서는 ①**에너지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 방안**과, ②최근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신산업 성과확산 및 규제개혁 종합대책」**(7.5일)의 **세부 실행대책**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 2016년도 2차 에너지신산업 협의회* 개요 >

- 일시/장소 : '16. 7. 15(금) 07:30, 서울 더플라자호텔 오키드홀(4F)
- 참석자 : 우태희 산업부 2차관, 김희집 서울대 교수(공동위원장), 에너지신산업 협의회 위원(25명) 및 본회 안건 관계자 등 30여명

* 정부와 에너지신산업 대표기업 및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회로, 에너지신산업 주요 쟁점을 논의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4년부터 총 10차례 개최

□ 이 자리에 참석한 우태희 차관은 그동안 공기업들이 독점해온 **에너지 데이터를 적극 공개**토록 해 **정부가 에너지 빅데이터 산업 육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계획은 **2단계로 추진**하기로 했다.

* 지능형전력계량인프라(AMI)의 세계적인 투자는 '20년 17.9조원으로 증가 전망('14년 7.9조), 국내기업 해외진출도 '20년 3,500억으로 증가 예상('14년 700억)
** (해외사례) (영국) '20년까지 3천만명에 스마트미터 설치계획, (미국SDGE) 웹 포털 서비스를 통해 고객맞춤형 에너지정보 제공 등

□ **1단계로** 한전·발전사·전력거래소 등의 **전력 데이터부터 개방해 에너지 정보를 활용하는 에너지신산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 에너지 효율관리, 에너지 컨설팅, 스마트미터링, 신재생발전, 사물인터넷(IoT)가전 등

○ 9월 중 에너지 데이터 개방의 구심점이 될 **「전력 빅데이터 센터」를 개소하여** 에너지 컨설팅, 에너지 효율관리 등 민간의 에너지신산업 사업 **모델 개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 지역별·용도별·시간대별 집합적 소비 정보, 전국 누진제 요금부담 분포 등
* 센터입지는 민간기업 접근성, 관련기업 협업가능성, 벤처기업 창업지원 등 고려해 선정

○ 또한, 빅데이터 활용의 제도적 기반인 **전기소비자의 프라이버시 보호, 정보이용 기준과 절차 등 관련 기준***도 정비할 계획이다.

* 「전력 사용량 정보 프라이버시 보호 및 정보 이용규정」 제정(9월)

□ **2단계**로 '17년부터 **가스, 열에너지까**지 **에너지 빅데이터 산업 대상영역을 확산**한다.

○ **5천억 원**을 투자('17~'22년)하여 **1,600만호**에 **실시간 계량·과금이 가능한 가스 원격검침(AMI)을 보급**하고, 축적되는 데이터로 **도시가스 소비 패턴 분석, 사용량점검 서비스** 등을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 또한 가스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압력, 용량 등 배관운영자료(데이터)**를 제공해 민간참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18년까지 전국 단위 열지도**(heat map)**를 작성·공개**하고 **'국가 열지도 센터**'를 구축하여 **열 에너지 데이터**를 활용한 민간의 다양한 사업기회 창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 회의에 참석한 **중소기업 대표들은** 빅데이터 활용을 위해 **보안기술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데이터 공유가 쉽도록 **오픈소스 방식으로 구축**할 것과, **데이터를 취합·제공할 전담기관 구축** 등을 제안했고

○ **에너지 생산·소비효율이 높아지고, 새 비즈니스와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 한편, **에너지신산업 종합대책**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후속 실행대책을 마무리**하여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유도할 계획이다.

□ **우태희 차관**은 "협의회에서 제시한 각계의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에너지 빅데이터 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강조하고, **에너지신산업 규제완화와 성과확산**에도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자료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신산업진흥과 신유철 사무관(044-203-539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ry of Trade, try and Energy

붙임 **2016년 2차「에너지신산업협의회」참석자 명단**

구 분		성 명	소속	직위
공동위원장		우태희	산업부	차관
		김희집	서울대	교수
교수・컨설팅		홍준희	가천대학교	교수
		송경열	맥킨지	부대표
금융		박재우	신영증권	상무
기업	마이크로그리드	하태석	LG CNS	상무
		이진	LS 산전	상무
		유양환	KT	단장
		심승택	SK	전무
		황우현	한국전력	단장
	에너지저장장치	이동철	삼성 SDI	전무
	전기자동차	신승규	현대자동차	이사
	수요자원 거래시장	강혜정	IDRS	대표
정부, 유관기관	산업부	나승식	에너지신산업정책단	국장
		이귀현	에너지신산업진흥과	과장
		김성열	전력진흥과	과장
	에너지공단	김인택	수요관리	이사
추가위원	빅데이터 관련 기업	박혜린	옴니시스템	회장
		김기령	헤리트	대표
		서정일	애니게이트	대표
		김종현	포스코ICT	상무

Minist
Indus